

한국코닥, 트렌드세터 800 메인딜러 소개 및 동판전달식 아이엔지·일우씨엔에스, 메인딜러로 선정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메인딜러로 선정된 광혁진·윤성호 대표이사 그리고 이수범 한국코닥 대표(사진 왼쪽)와 트렌드세터 800을 도입한 6개 인쇄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코닥(대표 이수범)은 지난 9월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 18회 국제인쇄산업대전(KIPES)에서 코닥 트렌드세터 800 메인딜러 소개와 함께 트렌드세터 800을 도입한 6개 인쇄사에 대한 동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코닥의 트렌드세터 800 메인딜러가 된 곳은 (주)아이엔지프리프레스테크(대표이사 윤성호)와 일우씨엔에스 주식회사(대표이사 광혁진)이다. 이 두 업체의 경우 기존에 인쇄 필름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력실과 인쇄사의 거래처가 많은 것이 장점중의 하나다.

아이엔지프리프레스테크와 일우씨엔에스는 본래 인쇄필름을 주로 판매했으나 최근 필름가격인상과 함께 CTP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CTP판매업체로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에 중국 CTP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 두었지만 코닥의 장비가 워낙 인지도 및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코닥을 선택하게 됐다. 특히 코닥의 트렌드세터 800의 경우 가격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우리나라 인쇄사의 고질적 문제 중의 하나인 공간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코닥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광혁진 일우씨엔에스 대표이사는 “지난 3월 필름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필름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반면에 고급인쇄를

위한 CTP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사업전환을 결심하게 됐다. 또한 기존의 필름을 공급하던 거래처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전환하는게 그리 어렵지가 않았다”고 밝혔다.

윤성호 아이엔지프리프레스테크 대표이사는 “초기에는 중국의 CTP 공급을 염두에 두었으나 가격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특히 코닥의 제품은 자동장비이기 때문에 생산성 및 시간에서 코닥이 더 앞선다고 생각해 코닥의 메인딜러를 선택하게 됐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 두 업체는 현재 코닥의 딜러인 15개 업체 중의 하나로 지난 7월경 메인딜러로 선정됐다. 이후 3개월 동안 진영출력센터, 한마음 P&B, 세종C&P, (주)믿음출력, HCH MEDIA, 성심 D&P 등 6개사에 트렌드세터 800을 판매했다.

이 두 업체는 메인딜러 선정당시 올해 20대 판매를 목표로 했지만 최근 순조로운 판매실적으로 인해 초기 목표판매대수보다 2배나 많은 40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일우씨엔에스와 아이엔지가 공동으로 메인딜러로 선정된 것에 대해 걱정스런 시선도 있지만 광혁진 대표와 윤성호 대표는 단호하게 “경쟁으로 인한 소비는 절대 없을 것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서로 협력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곽혁진 일우씨엔에스(주) 대표이사

“인쇄물 고급화 추세에 부응”

코닥의 CTP를 공급하게 된 계기는?



필름 시장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 특히 지난 3월 인쇄필름의 가격이 대폭 올라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고급 인쇄물에 대한 요구가 CTP의 활성화를 불러오는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우리 회사의 경우 그동안 코닥의 제품들을 판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왕에 CTP 판매에 나설 거라면 가격대비 성능이 뛰어난 코닥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향후 필름 시장은 어떻게 보는가?

현재 필름시장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부터 필름수요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0여개가 되는 출력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600개로 50% 정도가 줄어들었다.

앞으로 이 숫자는 점점 더 줄고, 반면에 CTP시장은 점점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품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쇄 선진국의 경우는 CTP시장이 거의 막바지라고 들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일우씨엔에스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9-2 선일빌딩 407호 전화 2285-2763

윤성호 (주)아이엔지프리프레스테크 대표이사

“경쟁보다는 협업에 중점”

공동으로 메인딜러가 되었는데.



일어나 우리나라 그동안 코닥의 제품을 공급해왔다. 그래서 코닥의 제품을 선택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코닥의 제품들은 가격도 중국의 제품보다 그리 높지 않고, 생산성이 높아 선택하게 됐다. 올해 40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20여대 정도는 거의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동으로 메인딜러가 된 만큼 경쟁으로 인한 소비는 지양할 것이다.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다.

또한 이번 국제인쇄산업대전(KIPES)에서도 공동부스를 만들어 참가했는데, 인쇄사 및 출력실 등 인쇄 관련업계분들에게도 보여줘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참가하게 됐다.

타업체와 다른 전략이 있다면.

기존에 인쇄필름을 공급해왔기 때문에 거래처가 어느 정도 있다. 어떤 거래처들이 있는지는 비밀이다. 인쇄필름을 거래하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 출력실과 인쇄사들인데 이들 업체에서 CTP 도입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업체보다는 CTP를 공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규모 업체보다는 중급이상의 인쇄사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객서비스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주)아이엔지프리프레스테크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34 전화 2265-1275

TIP 코닥 트랜드세터 800 CTP

코닥 트랜드세터 800은 세계최초로 상업화된 서멀 CTP로 전세계에서 6000여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 CTP다. 코닥 서멀 다이렉트 무현상 판재를 지원하며, 최신 하드웨어 구성 및 향상된 가동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더욱 작은 설치공간에도 더욱 강력해진 서멀 이미징 헤드를 장착해 이전보다 20%정도의 설치공간을 줄일 수 있다. 전가공 작업을 최적화하고 자동화와 속도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자 현장에서의 속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사업 확장에 따른 장비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서멀 이미지 플레이트 세터, 반자동식 외장드럼 방식으로 시간당 최대 42매 생산 가능하며, 간지 없이 최대 50장까지 자동으로 판 장착 및 탈착이 가능하다.